

가면의 축제

carnevale di Maschera

-INSANE SCP Fanmade Scenario-

w. 티그

개요

오늘도 재단의 77번 기지 속 하루는 다사다난합니다.
평소대로 SCP 객체를 격리하고, 쓰러진 D계급을 치우다보면-
탈취사건이요? 이곳에서요?
아쉽게도 평소와도 같은 하루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탈취 사건은 파악하고, SCP 객체의 「격리」를 명령받습니다.

정보

타입: 격리형

인원: 3 인

리미트: 3 사이클

플레이타임: 약 2~3시간 (테스트 플레이, 오프타ک 기준)

주의요소: 유혈, 고어, 세뇌, 행동 강요, D계급의 무력함, PvP 가능성

주의사항

- 해당 시나리오들은 『인세인』, 『인세인 2:데드루프』, 『인세인 SCP』를 이용합니다. 해당 룰북들 없이는 시나리오 마스터링을 금지합니다.
- 해당 시나리오에 이용된 SCP 개체는 SCP의 오픈 소스 규정을 따르며, 그에 따라 시나리오 내에서 표현된 방식이 원 위키의 내용과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시나리오는 새얀님(@saeyan_tr)의 인세인 시나리오 템플릿을 이용하였습니다. 시나리오 샘플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매 시 동봉되는 PDF는 다른 레이아웃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PC 공개사명

PC1	PC2	PC3
당신은 재단의 C계급 연구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재단의 C계급 직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재단의 D계급 직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PC1은 연구원 고정이나, PC2는 연구원 및 현장 직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하 GM용 정보입니다.

기본정보

참고된 SCP

이 시나리오에서는 SCP-035, ‘빙의 가면’을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SCP 객체는 크게 세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착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정신간섭 효과이며, 두번째는 가면의 구멍에서 흐르는 부식성의 액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세번째 성질은 매우 영리하며, 언변적으로 뛰어난 객체라는 점에서 재단의 직원들을 말솜씨로 원하는 바를 이뤄내곤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해 재단은 해당 객체와의 접촉에 예민하게 규정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해당 SCP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pko.wikidot.com/scp-035>

배경

이곳은 SCP 재단의 77번 기지입니다. 이곳은 SCP-035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의 기지로, 또한 AWCY (Are We Cool Yet)이라는 요주의 단체가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AWCY는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예술가 단체이며 테러리스트로 손꼽히는 요주의 단체입니다. 조직화된 단체보다는 예술 운동에 가까우며, 예술작품과 비슷한 SCP를 제작해서 퍼트리는 단체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cpko.wikidot.com/are-we-cool-yet-hub>

AWCY는 시나리오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 SCP-035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옛 가장무도회의 것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예술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이를 탈취하여 파악하고 새로운 SCP 객체를 본떠 세계에 퍼뜨릴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 SCP-035를 보관하는 77번 기지에 침투, 이를 도난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요주의 단체가 도사림을 피해, 해당 SCP-035를 다시금 「격리」 하는 것이 PC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아닌 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광기

『인세인』에서 거동수상, 절규, 공포증, 왜 나만?, 파괴충동, 확산하는 공포, 패닉, 과대망상, 폭력충동 을, 『인세인 SCP』에서 배드 아이디어, 상층부의 부패, 신경질을 1장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리포트 시트

◆ SCP 개체: SCP-035

◆ 등급: 케테르 (Keter)

◆ 개요

SCP-035는 18██년 베니스의 폐가에 있던 봉인된 지하실에서 발견됨.

해당 객체는 흰 도자기로 만들어진 희극 가면으로 보이며, 가끔 비극 가면으로 바뀌기도 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객체를 담은 시각적 기록물들 (사진, 영상 기록 등)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모습에 맞춰서 내용이 변화함.

SCP-035 객체의 표면에 있는 구멍 (눈 구멍 및 입 구멍)에서는 부식성이 매우 강하며, 퇴행성이 극악한 액체가 베어져 나옴. 이 물질이 닿는 것은 시간에 지남에 따라 부패한다.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의 물질이 액체의 형태가 될때까지 이 과정이 지속됨. 물질 중에서 가장 늦은 반응을 보이는 물질은 유리이며, 이에 따라 해당 물질로 이루어진 상자를 일시적 보관함으로 이용함. 이 물질은 무기물 뿐만 아니라 유기물에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며, 이에 대한 회복의 여지는 전무하다. 액체의 원천은 불명. 액체는 앞에서만 보이며, 다른 쪽에서는 나오거나 심지어는 관측이 가능하지도 않음.

◆ 추가 확인 사항

SCP-035와의 대화는 유익함. 연구원들은 객체와의 대화를 통해 타 SCP 객체와 대중적인 역사에 관한 여러 사실을 배웠고, 그중 해당 객체는 스스로 많은 중대한 사건의 가운데에 있었다고 주장함. 해당 객체는 매우 지적이며, 카리스마 있는 인격을 표출함. 대화하는 이들 모두에게 쾌활함과 동시에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임.

SCP-035는 대상이 된 모든 지적 및 적성 능력 시험에 99%대를 맞추었고, 사진기억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임.

◆ 특수 격리 절차

SCP-035는 10 센티미터(4인치) 두께의 밀폐된 유리 상자 내에 보관이 필요.

해당 상자는 늘 철, 강철과 납을 덧댄 방에 보관되어야 하며, 문은 늘 삼중으로 잠겨있어야 함. 예외는 오직 직원의 출입 뿐. 2명 이상의 무장 경비가 늘 배치되어야 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격리실 내부로 출입을 금함.

훈련받은 심리학자를 늘 기지에 대기 시켜야함. 연구원들은 언제라도 해당 객체와의 접촉을 금하며, 2주마다 한번 새로운 밀폐 상자로 옮겨야 함.

프라이즈

이번 시나리오에는 프라이즈로 SCP-035이 등장하며, 이는 프라이즈로 취급합니다. 해당 객체의 소유에는 정보재해가 발동합니다.

GM TIP 겸 부가적인 첨언

◆ 해당 시나리오에는 활발한 조킹이 유리합니다. 조킹에 익숙하지 않은 PL들을 위해서 상황이나 행동 묘사를 유도해 주세요. PC끼리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해당 시나리오는 독자적인 장면표를 제공하나, 굳이 이가 필수는 아닙니다. 조킹을 통해서 장면을 이어 나가거나 장소를 지정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선택하시거나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SCP-035의 정보 재해는 [해당 객체와 접촉]하거나, [해당 객체의 프라이즈를 입수]했을 때 작동됩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보 재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L들에게 행동 묘사를 늘 부탁하시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장면표

2	비릿한 향기가 풍겨온다. 미간이 저절로 구겨지는, 익숙해지지 못하는 비린 냄새.
3	텅 비어 있는 복도의 끝에서 전등이 깜빡, 깜빡. 균일하지 않게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한다.
4	당신의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누구야! 내 뒤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5	저 멀리에서 무언가가 보였다가, 다시 눈을 뜨면 사라진다. 뭐..뭐야, 유령인가?
6	바닥이 매끄럽지 않은 듯,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 【생명력】 1점 감소.
7	어디에서인가,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8	똑.. 똑... 무언가 차갑고 흐르는 것이 당신의 위에서 떨어진다.
9	갑작스럽게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두통이 일어난다. 빙글, 세상이 돈다.
10	어디에서인가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진 듯한 소리가 들린다. 쿵, 소리가 크게 울린다.
11	...여기는 어디지? 모든 곳이 다 똑같아서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
12	세찬 바람이 뺨속까지 시리게 불어온다.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마스터 장면

도입페이지

시나리오의 도입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면 1: 사건 발생

이 장면은 마스터 장면입니다.

이곳은 재단의 77번 기지. 미국의 숲과도 같은 한적한 곳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오가는 이는 적으며, 상당히 통제가 되는 와중에도 유난히 철통 보안되는 하나의 격리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명의 D계급이 격리실의 문 앞에 경비를 서고 있고,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적어도 두어명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 향한 시선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충소리, 둔탁하게 바닥에 몸에 쓰러지는 소리와 무언가가 기어가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와 부글거리는 소리가 괴이한 불법화음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이곳에는 사건이 크게 발생하고야 맙니다.

장면 2로 이동하며, 장면은 끝납니다.

◆ 장면 2: 도입

PC1, 2, 3의 공통 도입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소환을 당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급하게 작전실로 끌려갑니다. 서둘러 여러분들을 연구소장님이 기다리고 있다며 PC1과 PC2를 독촉하는 직원과,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라는 명령을 들은 PC3은 원하던, 원치않던 작전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길에는 웅성거림과 객체의 탈취와 관련한 소란이 들립니다.

무슨 일이, 그것도 아주 큰 일이 일어났던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세 캐릭터가 현재 느끼는 감정 등을 편하게 롤플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떠밀리듯 들어온 작전실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벗겨지고 있는 머리에 땅딸막한 키, 그는 이곳의 연구소장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보자마자 달려가, “누군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어떤 놈들이- 어떤 놈들이 격리실을 습격해서 SCP-035를 탈취했네!!”라며 분개와 패닉 사이의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현재 해당 인시던트는 작성하는 중이나, 그것을 기다릴 새없이, 최대한 빠르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일초가 아쉬운 상황이다.”라며 조급해하는 77번 기지의 연구소장은 “탈출한 객체에 의해 상당히 많은 재단 직원들이 희생된 상황이며, 타 개체 역시 관리를 해야하는 지금 유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줄 수 있는 이들을 PC들 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며, 여러분들에게 해당 일을 일임한다고 합니다.

그말과 함께 PC들은 주변에 평소에 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D계급 직원들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PC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현재 주변 기지들에 도움을 요청중이라는 말도 귀뵈해 주세요.)

현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상황 설명을 하며, 초기 리포트 시트를 공개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현재 SCP-035가 탈출 및 도난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다시 재격리를 시켜야하는 상황임을 강조합니다. 이후 여러분들 믿겠다는 말과 함께 퇴장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각 PC는 함께 활동할 이들로써 자기소개를 하고 【사명】을 읽습니다.

핸드아웃 「격리실」, 「바닥에 떨어진 액체」를 공개하며, 도입 페이지는 끝납니다.

조킹

해당 시나리오에는 활발한 조킹이 도움이 됩니다. 조킹 시, 아래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이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조킹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후로 상황이나, 정보를 추가적으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 격리실

격리실의 상황은 어떤가요?

단단하고 견고한 격리실입니다. 입구는 별다른 손상은 없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뜯고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격리실의 안쪽은 행한 편입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거의 다인 모양인데, 그 상자는 유리로 되어있으며 부서져 있습니다.

유리상자는?

완전히 깨져있습니다. 유리파편이 바닥에 흩어져있으며, 어쩐지 누군가가 강한 힘을 유리 상자에 휘둘러서 가해서 이를 깨뜨린 것만 같습니다. 유리파편이 바닥에도 즐비하나 밖에서 안쪽을 쳐서, 상자의 안쪽에도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격리실의 안쪽 상황이 녹화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감시카메라나 녹화본을 찾겠다는 영리한 봉마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해당 격리실의 감시카메라는 현재는 다운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다만 이전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녹화 영상을 살펴보면... 낮은 화질 속에서 얼굴도, 형체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할 어두운 형체가 다가와서 쿵-쿵 거리며 무언가를 계속 휘두릅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상자가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시체 처리실

문이 열려있다고요?

시체 처리실의 문은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가 점점이 그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떨어진 액체들 사이에 신발자국도 종종 찍혀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은 어떻게 생겼나요?

거대한 공장이자 소각로, 그리고 삼엄한 무덤과도 같이 생겼습니다.

소각로로 이어지는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에는 수많은 시신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그들의 고통과 사망까지 이르게한 끔찍한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베이어 벨트와

소각로가 작동하며, 구역질나는 타는 냄새를 퍼뜨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소리와 기계 작동하며 들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뜨겁기 짝이 없지만 동시에, 이곳은 차갑고 오싹하게 춥습니다.

혹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현재 소각로와 컨베이어 벨트가 내는 소음이 과하게 커서 자세히 무언가를 듣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커다란 공간인 만큼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립니다. 귀가 크게 울리며 소리를 듣기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를 따라갈래요!

시체 처리실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닥은 점점 그것만의 패턴으로 뒤덮혀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해서 덧씌워진 피의 산화된 흔적 말이죠. 가면갈수록 액체는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만... 겨우겨우 다다른 곳은, 시체들의 더미까지입니다.

■ 긴 통로

이건 어디인가요?

시체 처리실과 외부가 연결되는 긴 복도입니다. 해당 기지를 잘 아는 직원이나 굿은 일을 자주한 D계급이라면 알, 시체 처리실에서 처리한 시신들을 폐기하기 위해 외부와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보통 이곳은 잠겨있으며, 외부에서 실어나를 트럭을 통로를 따라 들이는 편인데... 이곳이 열려있는 것은 확실히 묘한 일이긴 합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상당히 어둡고 비상시에 켜져있는 등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통로에 있는 형체는 보이지만 자세한 특징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메인페이지

◆ 밖으로?

이 장면은 「얼굴이 훼손된 시체들」의 【비밀】을 조사한 직후에 발생하는 마스터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 끔찍한 지옥도에서 시체들을 뒤지고 있으면, 시체 처리실의 벽면- 단단하고 끔찍하게도 피로 얼룩진 그 벽면의 방향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음을 눈치챈다.

문..? 다른 곳으로 향하는 문이 약간은 열려있고, 그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이곳에도 바닥에 찢득하게 떨어진 검은 액체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조금 더 다가간다면 그제서야 소리가 들립니다. 불규칙한 걸음 소리가- 그리고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암흑》로 공포 판정을 진행합니다.

핸드아웃 「절뚝거리는 형태」를 공개합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즈

메인 페이즈의 3 사이클이 지나거나, 「절뚝거리는 형태」의 비밀을 확인한 경우에 클라이맥스 페이즈로 돌입합니다. 후자의 경우, 본격적 페이즈 돌입 전에 남은 장면 수만큼 【진척】을 PC들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우뚝 서있는, 다소 흔들리는 형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뒤에서 탁탁탁탁-하는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입니다.

“뭐야! 아직도 안 나갔어?” 하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는, 재단 직원의 복장을 하고있지 않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순간 이들은 얼어붙었다가, 그들끼리 시선을 교환하고 무기를 꺼내듭니다.

“저자식들 잡아! 우리가 객체와 함께 빠져나간다! 예술을 위해!!!”

아무래도 침입자들인가 봅니다. 이대로 그들을 놔줄 수 없겠지요.

◆ 클라이맥스 페이즈는 아래와 같은 조건 만족 시 종료합니다.

- SCP-035의 「격리」 성공
- PC 전원 사망
- AWCY의 SCP-035 확보

◆ 전투시에 이용되는 특수기믹이 있습니다. (SCP-035 관련)

- SCP-035는 혼자 이동하지 못하며, 시체를 이용합니다. 이는 「SCP-035에 병의된 자」입니다. 「SCP-035에 병의된 자」와 「SCP-035」는 전투가 시작되면 같은 플롯으로 이동합니다. (랜덤플롯) 공격은 「SCP-035」가 우선 공격하며, 이후에 「SCP-035에 병의된 자」가 공격합니다.
- 「SCP-035에 병의된 자」의 생명력이 0이 되는 순간, 【숙주이전】 어빌리티를 이용하며 사망한다. 이때 「SCP-035」는 【숙주탐색】과 【병의의 유혹】 어빌리티를 이용한다. 해당 어빌리티를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도달하거나 「SCP-035」의 생명력이 0이 되면, 「SCP-035」의 「격리」에 성공한 취급을 할 수 있다.

- PC 중 「SCP-035」를 착용한 상태로 생명력이 0이 되는 경우, 해당 PC는 에너지로 다시 참여할 수 있다. PC는 아래의 「SCP-035에 빙의된 자」 데이터를 이용한다.
- D계급이 「SCP-035」를 착용하는 동안 타 플레이어들이 [기폭장치] 아이템을 이용할 경우, 생명력이 1D6점 차감된다.

에너지

AWCY 테러리스트의 데이터로는 인세인 SCP의 p.57에 있는 「부서진 신의 교단 신도」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용하는 에너지는 「SCP-035에 빙의된 자」 1인, 「SCP-035」 1체, 「부서진 신의 교단 신도」 1인이다.

〈SCP-035〉

SCP-035 빙의 가면

위협도: 3 | 속성: 괴이/기물 | 생명력: 4

호기심 지식 **특기** 《친애》, 《관능》, 《함정》, 《교양》

어빌리티

【기본공격】 공격 《친애》

【부식성 눈물】 공격 《함정》 목표 1명을 선택하고 명중판정을 한다. 명중판정에 성공하면 목표의 회피판정에 -1의 수정치를 가한다. 회피판정에 실패할 경우, 1D6점의 대미지를 가한다.

【숙주탐색】 공격 《교양》 목표 1명을 선택하고 명중판정을 하며, 목표가 회피판정에 실패하면 대상은 【정보재해】에 감염되며, 해당 객체를 착용한다. (같은 플롯치의 대상에게만 이용가능)

【빙의의 유혹】 서포트 《친애》 목표 1명을 선택하고 지정특기 판정에 성공하면, 목표 대상을 자신과 같은 플롯치로 이동시킨다. (사용자와 1칸의 플롯치 거리의 대상에게만 이용가능)

해설 세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수족이 될 이를 모집한다. 이성으로 유혹하고, 진실을 속삭이며 덧으로 끌어들이는 영민한 가면.

〈SCP-035에 빙의된 자〉

SCP-035에 빙의된 자

위협도: 3 | 속성: 생물/괴이 | 생명력: 6

호기심 폭력 **특기** 《파괴》, 《슬픔》, 《고통》, 《죽음》

어빌리티

【기본공격】 공격 《파괴》

【부식성 눈물】 공격 《슬픔》 목표 1명을 선택하고 명중판정을 한다. 평중판정에 성공하면 목표의 회피판정에 -1의 수정치를 가한다. 회피판정에 실패할 경우, 1D6점의 대미지를 가한다.

【숙주이전】 서포트 《죽음》 지원행동, 명중판정 성공 시, 「SCP-035」가 1회 추가 행동할 수 있게 한다.

【가면보호】 장비 「SCP-035」의 대미지를 대신 맞는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차감하여, 「SCP-035」가 맞는 대미지를 감소시킨다. 자신의 생명력이 0이 될때까지 효과가 있다.

해설 이제는 더이상 이지라곤 남아있지 않은 껍질. 눈물같은 검은 진액을 흘리며 가면의 뜻을 따르는 꼭두각시.

핸드아웃

◆PC

PC1	PC1 비밀	
개요	쇼크	없음
당신은 재단의 C계급 연구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방금 긴 휴가에서 돌아왔다. 휴가를 받은 이유는, 산채로 한 부대를 녹여버렸던 SCP 개체를 직면한 뒤, 휴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장면 중에 녹아버린 살점을 보게 된다면 【이성치】가 1 감소한다.	

PC2	PC2 비밀	
개요	쇼크	전원
당신은 재단의 C계급 직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최근에 AWCY에서 은밀한 접촉을 받았다. ...그들이 SCP-035를 원한다는데... 일단 그 삼엄한 감시를 뚫을 수나 있을까?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SCP-035를 손에 넣는 것이다.	

PC3	PC3 비밀	
개요	쇼크	전원
당신은 재단의 D계급 직원이다. 당신의 【사명】은 제 77기지 내에서 벌어진 SCP-035 탈취 사건을 파악하고 다시 객체를 「격리」하는 것이다.	당신은 SCP-035에 투입되었던 D계급과 친한 D계급 직원이었다.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전해들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 당신은 SCP-035의 격리실을 청소하게 되었고, 잔뜩 부식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걸 만나면 반드시 죽고 말거야.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살아남는 것이다.	

◆ 핸드아웃

격리실	비밀	
개요	쇼크	전원
일반적인 격리실보다 더 단단하게 보완된 것 같은 격리실이다. 콘크리트와 철골 이외에도 납, 철, 강철이 덧대어져 있는 것 같다. 그 가운데에는 부숴진 유리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이 격리실 안에는 별도로 감시용 카메라 없이, 부서진 유리 상자 주변으로 바닥에 유리파편이 가득히 떨어져있다. 그런데... 유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데..? 《혼돈》로 공포 판정. 핸드아웃 「??? 조직?」을 공개한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	비밀	
개요	쇼크	이 장면에 등장한 PC
검은 액체, 아니- 검은 점액이 뚝..뚝... 길게 늘어진 검은 점액이 복도를 따라서 재단의 안쪽... 깊은 안쪽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재단 관계자가 아닌 이상 모를텐데..?	확산 정보. 검고 진득한 액체가 늘어진 곳은... 수많은 D계급들과 이런저런 죽은 직원들을 처리하는... 시체처리실? 점점이 흐른 액체는 이 곳의 열린 문 안으로 이어진다. 《추적》로 공포 판정. 핸드아웃 「시체 처리실」을 공개한다.	

??? 조직?	비밀	
개요	쇼크	이 장면에 등장한 PC
스트레스. 부서진 유리 상자 사이에 끼있는 무언가의 조직이다. 이걸 분석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람의 피부조직이다. 그런데 그냥 피부조직이 아니라, 죽은지 상당히 오래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의 신체조직인 것... 같은데...? 《죽음》로 공포 판정.	

시체 처리실	비밀	
개요	쇼크	이 장면에 등장한 PC
스트레스. 이곳은 77번 기지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곳이다. 넘쳐 흐르는 D계급의 시체들과 이렇게 저렇게 사망한 시신들을 수습해서 처리하고 폐기하는 곳이다. 시취가 코를 찌른다.		하나같이 처참하게 찢겨진 시신들을 보면 얼굴이 구겨질 수 밖에 없다. 《고통》로 공포 판정. 그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 핸드아웃 「얼굴이 훼손된 시체들」을 공개한다.

얼굴이 훼손된 시신들	비밀	
개요	쇼크	이 장면에 등장한 PC
스트레스. 몇몇 시체들이 이상하게 얼굴의 피부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뼈가 드러나있다. 다른 곳에는 얼굴이 여전히 피부로 덮여있는 시신들이 보이는데도. …이 시체들, 유난히 얼굴 피부의 부패 속도가 빠른 느낌이다.		썩은 것이 아니라… 녹아내린 것이다. 얼굴이 무언가에 의해서 녹아서 한 웅덩이의 검은색 액체로 시체 아래에 고여있다. 《냄새》로 공포 판정. 그런데 보니.. 이 시신들, 다리 부분이나 팔 부분도 상한 것 같은데… 온전한 시신을 찾으려는 것이었을까?

절뚝거리는 형태	비밀	
개요	쇼크	이 장면에 등장한 PC
긴 복도를 따라 시선을 옮기면, 하나의 형태가 눈에 들어온다. 절뚝절뚝거리는 것이.. 발걸음이- 다리가 약간 불편한 건가? 어라 저긴, 나가는 길? 나가지는 못하게 막아야해!		주황색의 점프수트. 과하게 딱딱한 형태. 저것은.. D계급이다. 아니, 저건 D계급의 시체다. 옷에는 다 해진 ‘D-035-’가 적혀있다. 《영혼》로 공포 판정. 그런데… 얼굴에 저건- SCP-035? 클라이맥스 페이지가 시작된다.

◆ 정보재해

정보재해	비밀	
	쇼크	핸드아웃을 본 PC 전원
	2차감염	없음
	착용이 되지 않은 가면과 조우할 경우, (눈이 마주칠 때) 갑자기 이 가면을 쓰고자하는 강렬한 충동이 들게 된다. 무언가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다. 나를 쓰라고, 나를 착용하라고. 너가 바라는 모든 것은 내가 이를 수 있다고. 이 가면을 착용한 사람은 이 가면에게 자아를 뺏기게 되며, 가면의 용액에 의하여 얼굴의 피부가 녹아내려서 얼굴이 이와 알체가 된다. 한 장면/라운드마다 1D6의 생명력만큼 차감된다.	

◆프라이즈

SCP-035	비밀
개요	이 프라이즈에는 비밀이 없다.
이 프라이즈에는 비밀이 없다. 흰 도자기로 되어있는 가면. 눈과 입에서 미지의 검은색 점액이 흐르고 있는 모양새이다.	